

유엔 아카이브와 한반도 냉전사·평화사의 모색 - 유엔 아카이브 소장 한국 관련 자료 소개와 해제를 중심으로*

류기현**

국문요약

본고는 유엔 아카이브의 연혁, 이용 방법, 자료 분류 체계를 소개하고 유엔 아카이브 자료 중 한반도 냉전사·평화사 연구에 활용할 만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1945년 이래 한반도는 유엔과 여러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었지만 이에 대한 역사 연구는 충분치 않았다. 이는 자료 접근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유엔의 내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유엔 아카이브의 자료 상황이 연구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이 유엔 아카이브 내 한국 관련 자료의 일부를 수집했지만, 자료 분류 방식의 혼란으로 연구자들의 이용이 쉽지 않다. 본고는 유엔 아카이브 내 한국 관련 자료의 체계 및 국가기록원의 유엔 자료 소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유엔 자료 중 일부를 소개하여 향후 냉전사·평화사 연구에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유엔 기록보존소, 언커크, 윤크라, 유엔기념묘지, 국제연맹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국사학과 강사, rkh0724@snu.ac.kr

I. 들어가며

유엔(United Nations)은 한국현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주체 중 하나이다. 남한 정부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이 감독한 5·10 총선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1948년 12월 제3차 유엔총회가 남한 정부를 유엔 감시 하에 총선이 실시된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사실은 냉전 시기 남한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정통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였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82~84호를 통해 북한의 남침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조직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한국전쟁 정전 이후에도 한국의 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유엔의 관여를 상징하는 기구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이하 ‘언커크’)이 활동했고, 유엔한국재건단(UNKRA, 이하 ‘운크라’)은 다양한 경제 지원을 통해 남한의 전후 복구를 도왔다. 또한 1970년대 중반까지 유엔총회에서는 거의 매년 ‘한국 문제(Korean Question)’가 상정되어 남·북한의 치열한 외교적 대결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현대사에서 유엔의 존재감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한반도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 역사학 분야에서 유엔에 대한 선행 연구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유엔한국위원단(UNCOK, 1948~1950)-언커크 및 운크라 등으로 이어지는 재한(在韓) 유엔 기구의 조직·활동을 다룬 연구, 1960~70년대 남한 정부의 유엔 총회 외교 활동을 분석한 연구들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¹⁾ 이 연구들을 통해 한반도-유엔 관계의 구체적 모습이 일정 부분 밝혀졌지만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도 많으며,

1)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조직 및 활동을 다룬 연구로는 강성천(1994), 최요섭(2005)을 들 수 있다. 그 후계 기구인 유엔한국위원단에 관해서는 신승욱(2013), 김보람(2015)을 참조할 수 있다. 운크라의 성립 과정 및 초기 활동에 대해서는 임다은(2019)의 연구가 있다. 언커크에 관해서는 Lee(1974)가 성립과 해체까지 장기간의 활동을 다루었으나, 1970년대 초반까지 공식 발간된 자료들만을 토대로 한 제한적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까밀로 아가레 토리니(2014), 홍석률(2020), 류기현(2021)은 1960~70년대 언커크의 와해 과정을 각각 칠레-북한 관계, 미-중 데탕트, 비동맹운동의 성장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했다. 1960~70년대 남한 정부의 유엔총회 대응에 대해서는 이주봉(2011)과 김도민(2020) 등의 연구가 있다.

거시적·총체적 시각에서 유엔이 한반도에서 수행한 역사적 역할과 그 의미를 따져 묻는 연구는 여전히 부재하다.

이러한 ‘연구 부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자료 접근 문제다. 지금까지 한국-유엔 관계와 관련한 대부분의 역사 연구는 유엔 내부 자료가 아닌 미국이나 남한 정부의 외교 문서를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과 관련하여 유엔 사무국 및 산하 기관들이 생산한 자료의 상당수는 뉴욕 유엔 본부에 인접한 유엔 아카이브(UN Archives)에 소장되어 있고, 이중 적지 않은 부분이 국내 기관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이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자료군의 기본적인 열개 또한 지금까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2016년~19년 한 대학 연구소가 한국-유엔 관계 관련 자료 DB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유엔 아카이브의 일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였으나, 아카이브 소장 한국 관련 자료의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고, 자료 수집·정리 방식이 비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 자료의 일부만을 파악·정리했다.²⁾ 최근에는 몇몇 연구자들이 유엔 아카이브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연구 논문을 제출하였으나, 아카이브의 자료 관리 체계나 한국 관련 자료의 상황, 국내 소장 현황 등을 정리한 기본적인 ‘안내글’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³⁾

본 자료 해제는 2019년 필자의 유엔 아카이브 방문 경험 및 후속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유엔 아카이브의 연혁, 아카이브의 전반적인 자료관리 체계, 아카이브 소장 한국 관련 자료의 열개 및 국내 소장 현황을 정리한다. 아울러 아카이브 소장 한국 관련 자료의 구체적 사례로 AG-049 문서군의 언커크 자료를 일부 살펴보고자 한다.

언커크는 호주·필리핀·태국·터키·칠레·파키스탄·네덜란드 7개 유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한반도의 정치적 문제를 다룬 유엔 산하 기구 중 가장 오랜 시간 존속(1950~1973)했다. 언커크는 유엔군에 의한 한반도 전체의 무력 통일이 예상되던 1950년 10월 유엔총회 결의 376(V)호에 근거

2)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2016~2019)」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6-KFR-1230008> 접속일자: 2022.7.8.) 이 연구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는 최동주(2020)에 정리되어 있다.

3) 유엔 아카이브 사료를 직접 활용한 최근의 연구들로 이정선(2021), 류기현(2021), 전성현(2021) 등을 들 수 있다.

하여 조직되었으며, 한국전쟁이 끝나면 통일 한국 정부의 수립 및 북한 점령 지역 관리라는 중요 임무를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1950년 가을~겨울 중국의 개입으로 전세가 뒤바뀌면서 언커크는 원래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한반도에 민주적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기구의 최종 목표는 결국 달성하지 못한 채 1973년 해제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커크는 한반도에 대한 유엔의 관여를 상징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녔고, 한국 정부는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남한의 ‘정통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담보하는 수단으로 언커크를 중시했다. 언커크의 이러한 역사적 위상을 고려할 때 언커크 자료는 유엔 아카이브가 소장한 한국 관련 자료의 성격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유엔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이해상의 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동시에 한반도 냉전사·평화사 연구의 자료적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유엔 아카이브 개황

1. 유엔 아카이브 연혁

유엔 아카이브의 행정 직제상 정식 명칭은 유엔 문서·기록관리과(UNARMS: 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이다. 유엔 문서·기록관리과는 현재 유엔 본부 사무국 활동지원부(Department of Operational Support) 소속이며, “유엔 사무국을 위해 기록 및 정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엔의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고 그에 대한 접근을 돕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⁴⁾ 뉴욕 맨해튼(Manhattan) 유엔 본부에 사무실과 열람실을 두고 있으며, 흔히 “유엔 아카이브”로 통칭한다.

유엔 아카이브의 설립은 2차대전 직후 유엔의 탄생과 궤를 같이한다. 1945년 4월~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헌장의 제정 및 서명을 위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회의 관련 각종 문서들을 보존하기 위해 문서보존단(archives unit)이 조직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

4) <https://archives.un.org/> (접속일자: 2022.7.11.)

직후에는 제1차 유엔총회 준비 및 사무국 조직 등의 임무를 띤 유엔창립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1945~1946)가 만들어졌는데, 창립준비위원회도 비슷한 형태의 문서보존단을 1946년 1월까지 운영했다. 이 두 개의 기록보존단이 현재 유엔 아카이브의 전신이다(Claus 1947, 129-130).

1945년 말~1946년 초에는 미합중국 수석 기록관리관(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으로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최고 책임자였던 솔론 벅(Solon J. Buck)을 중심으로 미국의 아키비스트들이 유엔 아카이브 설립을 제안했다. 이들은 유엔의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별도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아카이브 설립 제안」(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Archives)이라는 7쪽 분량의 글을 외교 채널을 통해 유엔에 전달했다(Claus 1970, 26). 이들의 제안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유엔의 설립자들에게 기록 보존·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는데 적어도 일정 부분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1946년 뉴욕 롱아일랜드의 레이크 석세스(Lake Success)에 임시 유엔 본부가 들어서면서 유엔 사무국 산하에 문서보존과(Archives Section)가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문서보존단이 임시적 성격의 조직이었던 것과는 달리, 문서보존과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아키비스트 및 문서 수집·관리를 위한 기능과 시설을 갖춘 영구적 성격의 조직이었다. 유엔 아카이브의 실질적인 출발은 문서보존과가 설치된 바로 이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보존과의 초대 책임자는 몰타 출신의 아키비스트 아르비드 파르도(Arvid Pardo)로서, 1946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록담당관 대리(acting archivist)로 근무하며 유엔 아카이브의 초석을 놓았다(Erlandsson 1978, 5-6). 1946년 10월 파르도의 뒤를 이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출신의 로버트 클라우스(Robert Claus)가 기록담당관 대리로 부임하여 아카이브의 초기 정착을 책임졌다(Erlandsson 1978, 5-6). 1947년 3월 유엔 사무국은 사무총장 고시(Secretary General's Bulletin) 63호를 통해 문서보존과에 “유엔의 모든 비(非)현역(non-current) 기록 및 일부 현역 기록”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하며 아카이브의 권한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UN Secretary General 1947).

아카이브는 1946년 레이크 석세스에 자리잡은 이후 몇 차례 운영상의 변화 및 장소 이전을 겪었다. 1950년 아카이브는 맨해튼의 새 유엔 본부 건물

로 이전했다가 1970년에는 뉴욕시 남쪽의 퀸스(Queens)로 이전했고, 1978년 다시 맨해튼 유엔 본부 근처로 돌아왔다. 1988년에는 아카이브의 직제상 명칭인 문서보존과가 현재의 명칭인 유엔 문서·기록관리과로 변경되었다.

2. 자료분류 체계와 이용 방법

유엔 아카이브는 유엔의 다양한 ‘내부 자료’를 소장·관리한다. 아카이브 자료 중에는 웹사이트(archives.un.org)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자료들은 뉴욕의 아카이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 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기관(국가기록원 등)을 방문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유엔의 주요 기관(principal organs) 및 총회 산하 6개 주요위원회(main committee)의 회의 기록이나 결의안 등 일부 공개 자료들은 유엔 디지털 라이브러리(digitallibrary.un.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현재 유엔 아카이브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의 자료를 관리·제공한다.⁵⁾ 첫째, 역대 유엔 사무총장 관련 기록물이다. 2022년 7월 현재 초대 사무총장 트뤼그베 리(Trygve Lie, 1946-1952 재임)부터 제8대 사무총장 반기문(2007-2016)까지 역대 사무총장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유엔 사무국 산하 각 부서들이 생산한 기록물이다. 경제·사회업무부(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정치업무부(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평화유지활동부(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등 사무국 개별 부서들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셋째, 유엔의 전신 기구(predecessor organizations)들이 남긴 기록물이다. 즉 유엔 창립 이전 시기에 활동했거나, 유엔 창립 초창기에 단기간 활동하다 해체되거나 흡수된 국제 기구들이 남긴 기록물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국제연합구제부흥사업국(UNRRA, 1943-1948), 유엔창립준비위원회 자료 등을 들 수 있는데, 유엔의 전신 격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1919~1946) 자료는 과거 국제연맹 본부로 쓰였던 유엔 제네바 사무국(UN Office at Geneva)에서 별도의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⁶⁾ 넷째, 유엔이 세계 각 지역에 파견한 현지 사절단

5) <https://archives.un.org/content/finding-aids> (접속일자: 2022.7.11.)

6) 유엔 제네바 사무국 아카이브는 국제연맹 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운동에

(field mission)이 남긴 기록물이다. 이 글의 후반부에서 다룰 언커크 자료군이 여기에 해당하며,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운크라 등 한국 관련 기구들 뿐만 아니라 유엔팔레스타인특별위원회(UNSCOP, 1947), 유엔인도·파키스탄위원회(UNCIP, 1948-1950), 에리트레아위원회(Commission for Eritrea, 1950) 등 1945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엔이 각지의 분쟁 조정 및 정부 수립 등의 목적으로 파견한 각종 사절단·위원회의 자료들이 남아 있다.

유엔 체제 내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들의 경우는 별도의 아카이브를 마련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⁷⁾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전문기구는 넓은 의미에서 유엔의 일원으로 간주되나 별개의 조약을 근거로 설립되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다(정인섭 2021, 862). 따라서 이들 전문기구에서 생산한 자료는 유엔 아카이브에서 수집·보관하지 않는다.

유엔 아카이브는 위 4개 영역의 자료를 AG(Archive Group)-시리즈(Series)-박스(Box)-폴더(Folder)-개별 문건으로 이어지는 체계 속에서 관리하고 있다. AG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많이 찾는 미국 메릴랜드(Maryland) NARA II의 RG(Record Group)에 대응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다.⁸⁾ 대개 유엔 산하의 각 기구·부서별로 AG가 하나씩 부여되는데, 예를 들어 언커크는 AG-049 자료군으로, 운크라의 AG-064 자료군으로, 초대 총장 트뤼그베리 자료는 AG-013 자료군으로 분류되었다. 각 AG는 다시 몇 개의 시리즈로 구성되며, 각 시리즈의 문건들은 내용 및 분량에 따라 박스 및 폴더에 보관된다.

관여한 개인·단체가 남긴 자료들도 보관·제공하고 있다. 국제연맹 자료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계획으로 자료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LONTAD; Total Digital Access to the League of Nations Archives Project)가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국제연맹의 모든 자료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제네바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s://archives.ungeneva.org/>) 참조.

7) 유엔 체제 내 전문기구의 목록은 <https://www.un.org/en/about-us/specialized-agencies> 참조. (접속일자: 2022.7.11.)

8) 미국 NARA II는 소장 자료를 RG 또는 Collection-Series-File-Item의 4단계 체계로 분류한다. RG는 미 정부기관이 생산한 연방 기록물의 최상위 분류 단위이며, 각 RG에는 고유한 번호가 배정된다. 예를 들어 RG 59는 미 국무부 자료군, RG 554는 맥아더가 지휘한 극동군사령부, 연합군총사령부, 유엔군사령부의 자료군이다. 컬렉션도 RG와 마찬가지로 NARA의 최상위 자료 분류 단위인데, 연방 기록물이 아닌 개인이나 기관이 기증한 자료들을 분류하는 단위이다. 국사편찬위원회(2014, 16) 참조.

유엔 아카이브는 각 AG 별로 폴더의 제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비교적 상세한 검색 도구(finding aid)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어 각 문서군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용이한 편이다.⁹⁾ NARA II의 경우 소장 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한데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상 각 RG 별로 상세한 검색 도구를 찾기도 어려우나, 유엔 아카이브의 경우는 검색 도구를 모두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그 구성 또한 체계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자료의 열개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아래의 <그림 1>은 AG-049 언커크 문서군의 검색 도구 중 일부이다.

<그림 1> 유엔 아카이브 검색 도구 예시

Box	Folder	Title	Date Created	Date Closed	Security Level	Scanned Items
S-0685-0001		Administrative Fi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01/05/1959	21/01/1974		
	S-0685-0001-01	Administration - ADM/000 - Planning and Provision of Administrative Services	04/05/1970	28/12/1972	Unclassified	No
	S-0685-0001-02	Administration - ADM/001 - Chronological Files (1971)	05/01/1971	20/12/1971	Strictly confidential	No
	S-0685-0001-03	Administration - ADM/001 - Chronological Files (1972)	04/01/1972	28/12/1972	Strictly confidential	No
	S-0685-0001-04	Administration - ADM/001 - Chronological Files (1973)	09/01/1973	21/01/1974	Strictly confidential	No
	S-0685-0001-05	Administration - ADM/004/2 - UNCURK Information Circulars	01/05/1959	18/12/1970	Unclassified	No
	S-0685-0001-06	Administration - ADM/004/2 - UNCURK Information Circulars	25/11/1971	22/10/1973	Unclassified	No
	S-0685-0001-07	Administration - ADM/005 - Communications and Records	30/04/1971	17/12/1973	Unclassified	No
	S-0685-0001-08	Administration - ADM/005/1 - Radio Equipment	07/01/1970	28/12/1973	Unclassified	No

<그림 1>은 AG-049 자료군의 S-0685 시리즈 자료 내역이다. 표 왼쪽 상단의 S-0685-0001은 0685번 시리즈의 1번 박스라는 뜻이고, 그 오른쪽에는 0685번 시리즈 1번 박스의 1번 폴더부터 8번 폴더까지 제목이 각각 기술되어 있다. Date Created와 Date Closed는 각 폴더에 편철된 문건들이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기록한 것이다. Security Level은 각 폴더의 비밀 등급인데, S-0685-0001-01, 05, 06, 07, 08번 폴더는 unclassified로 분류되었으므로 제한 없이 모두 공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02, 03, 04번 폴더는 strictly confidential로 분류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외비이다.

9) <https://archives.un.org/content/finding-aids> (접속일자: 2022.7.11.)

그러나 대외비로 표기되었더라도 실제로는 공개되어 열람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scanned items는 디지털화 여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림 1>의 폴더는 모두 no로 표시되었으므로 온라인 이용이 불가능하며 아카이브 현장을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yes로 표시된 폴더의 경우는 유엔 아카이브 웹사이트 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유엔 아카이브 자료를 직접 열람하기 위해서는 맨해튼의 아카이브 열람실(reading room)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열람실은 304 E 45th Street, New York, NY 10017에 위치한다. 유엔 본부 건물과 바로 인접한 곳이며, 맞은편에는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가 있다. 아카이브 웹사이트 상에는 열람실 주소가 나와 있지 않으며, 열람실 사용 예약을 한 방문자에 한해서만 주소 및 찾아오는 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방문 및 자료 열람을 원할 경우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아카이브 측을 접촉한 후 희망하는 날짜에 열람실 여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열람실의 규모가 협소한 탓에 원하는 날짜에 방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가능 여부를 일찌감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희망 날짜에 열람실 사용이 가능하다면 신상 명세를 적은 등록서류(Registration Form)와 더불어 열람 희망 자료의 목록인 열람신청서(Reading Room Request)를 아카이브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료 열람 및 복사(스캔·촬영)가 가능했지만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열람실 운영이 중단되었고, 2022년 7월 현재 열람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하루에 두 명의 방문자만 허용하는 제한적 개방을 실시하고 있다.

3. 유엔 아카이브 한국 관련 자료의 국내 수집 현황:

AG-049 및 AG-064 문서군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 한반도와 유엔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듯 유엔 아카이브 곳곳에는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산재한다.¹⁰⁾ 이 중에서도 한

10)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자료 또한 유엔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 자료는 유엔 아카이브에 없고, 미국 NARA II의 RG 554 미 극동군사령부·연합군총사령부·유엔군 사령부 문서군, RG 550 태평양 방면 미 육군 문서군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직이 창설 이래 미 극

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군은 AG-049 언커크(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자료군과 AG-064 운크라(유엔한국재건단) 자료군이다.

AG-049는 언커크,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부산에 위치한 재한유엔기념묘지(UNMCK,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세 개의 재한 유엔 기구가 남긴 각종 자료가 집적된 자료군이다(김선미 2013, 6).¹¹⁾ 총 8개 시리즈, 86개 박스, 698개 폴더로 구성되었으며, 아카이브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문서량은 30 리니어 피트(linear ft) 가량이다.

AG-049의 핵심은 언커크 자료로서, AG-049의 8개 시리즈 중 5개 시리즈가 언커크의 회의록, 각종 행정 서류, 서신철 등 다양한 내부 자료로 구성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7년 조직되어 1948년 남한 지역의 5.10 총선 및 정부 수립 과정을 관리·감독한 후 유엔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던 기관으로,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 8개국 대표로 구성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9~1950년 기간 남북한 평화통일 중재 및 38선 일대 군사 충돌 감시 등의 활동을 전개한 유엔한국위원단(UNCOK)과 더불어 언커크의 전신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별도의 문서군으로 분리되지 않고 AG-049에 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기념묘지는 한국전쟁 기간 전사한 유엔 참전국 군인 2300여 명이 안장된 곳으로, 언커크가 1959년부터 1973년까지 묘지의 관리 주체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AG-049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AG-064는 운크라의 각종 자료를 집적한 자료군이다. 운크라는 1950년부터 1958년까지 전쟁으로 붕괴된 한국 경제의 복구를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민간 구호 및 시설 원조를 전개했다. AG-064 자료군은 S-0526 사진과 기록(Photographs and Records) 단일 시리즈로 구성되었지만, 전체 자료 규모가 총 351개 박스·1787개 폴더에 달할 정도로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다. 특히 이 자료군은 문서 뿐만 아니라 운크라가 활동 과정에서 촬영한 다양한

동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 조직과 사실상 일치하고, 미 극동군사령관 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항상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해 온 사정에 기인한다. 국제법, 국제정치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유엔사가 그 존립 근거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두고 있는 만큼 유엔과 실체적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엔의 ‘산하 기구’로는 볼 수 없으며 미국 정부의 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 11) 영문 명칭은 현재도 그대로 쓰고 있지만, 한국어 명칭은 2001년부터 ‘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되었다.

사진을 포함하고 있어 1950년대 전후 복구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특색을 지닌다. 운크라라는 교육, 의료, 보건, 기술 원조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1950년대의 중요 외원(外援) 기관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관련 연구가 충분한 정도로 축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카이브의 방대한 자료가 그러한 연구사적 공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G-049와 AG-064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아 자료 열람을 위해서는 뉴욕의 유엔 아카이브를 방문해야 하지만, 두 문서군 자료의 일부를 국가기록원이 현지에서 수집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등 기타 사료 수집 기관은 유엔 아카이브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에서 유엔 아카이브를 자료를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곳은 국가기록원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유엔 아카이브 자료 원본은 성남의 나라기록관과 부산의 역사기록관 두 곳이 소장·관리하고 있는데, 요청할 경우 PDF 형태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AG-049와 AG-064 자료의 현황을 철 단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국가기록원 소장 AG-049 및 AG-064 문서군 현황

성남 나라기록관		
관리번호	자료 내용	분량 (철 단위)
DTA0000021~DTA0000063	UNKRA 보고서, 비망록 등 (AG-064)	43개
DTA0000145~DTA0000166 DTA00002618~DTA00002821	UNCURK 회의록, 행정서류, 보고서, 각종 서신류 (AG-049)	206개
DTA00002822~DTA00002909	유엔기념묘지(UNMCK) 관련 기록물 (AG-049)	76개 ¹²⁾
부산 역사기록관		
관리번호	자료 내용	분량 (철 단위)
BTA0000328~BTA0000370	UNTCOK 회의록, 서신, 5.10 총선 관련 공보물, 각종 행정서류 등. (AG-049)	43개
BTA0000371~BTA0000456	UNCURK 행정, 재정, 인사 관련 문서 등. (AG-049)	86개
BTA0000457~BTA0000535	유엔기념묘지(UNMCK) 관련 기록물 (AG-049)	79개

국가기록원은 ‘(자료)철’과 ‘(자료)건’ 단위로 소장 자료를 제공하는데, ‘철’은 유엔 아카이브 또는 NARA II의 ‘폴더’에, ‘건’은 폴더 안의 개별 문건과 대응한다. <표 1>에 등장하는 DTA 또는 BTA로 시작하는 7자리 숫자는 국가기록원이 각 자료철마다 설정한 관리번호이다.

<표 1>에서도 드러나지만,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유엔 아카이브 자료의 대부분은 AG-049 자료다. 언커크 관련 자료철이 292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련 자료철이 43개, 유엔기념묘지 관련 자료철이 155개로 모두 합하면 AG-049 자료철이 490개다. 국가기록원이 원 소장처인 유엔 아카이브가 편철한 각 폴더를 원 상태 그대로 촬영·복사하여 DTA 또는 BTA로 시작하는 자료철 분류에 그대로 반영했다고 본다면, 기록원은 AG-049 자료군의 대략 70% 가량(490개 폴더/698개 폴더)을 소장한 것이다.¹³⁾ AG-064 자료군의 경우 유엔 아카이브 소장 폴더 수가 1787개인데, 기록원이 그 중 43개만 소장하고 있으므로 자료 수집량이 매우 적다. 국가기록원은 AG-049와 AG-064 문서군 자료 뿐만 아니라 80여개 자료철 분량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관련 자료도 소장하고 있는데(관리번호 DTA0000063~DTA0000144), 이 자료의 원 출처가 구체적으로 유엔 아카이브의 어떤 자료군인지는 기록원 웹사이트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의 유엔 자료는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아직도 상당 부분 미수집 상태인 AG-064와는 달리 AG-049는 상당 부분이 이미 국내에 들어온 셈이므로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이용상의 난점도 있다.

첫째로, 자료철 내 문건 분류의 부정확성이다. 자료철 내에 실제로는 더 많은 문건(자료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 검색 엔진에 반영되지 않아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 DTA0002807 자료철을 검색하면, 이 자료철은 제목이 “1951년 UNCURK 회의 기록”이며 철 내에는 총 4개의

12) DTA0002822~0002825, DTA0002831~0002834, DTA0002898~0002901번 자료철이 없다.

13) 다만 UNTCOK 자료(AG-049 문서군의 S-0684 시리즈)의 경우, 유엔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검색 도구 상으로는 7개 박스의 36개 폴더인데,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기록원의 UNTCOK 관련 자료는 43개 폴더로 7개의 오차가 있다. 아카이브의 검색 도구에 누락된 폴더가 있는 것인지, 국가기록원이 아카이브 자료를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폴더를 분리·재편성한 결과 발생한 오차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건(제46회, 54회, 58회, 66회 회의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이 자료철에는 언커크의 제40회(1951.1.15.) 회의록부터 66회(1951.4.24.) 회의록까지 총 27건의 회의록이 있다. 실제 존재하는 자료건보다 더 훨씬 적은 수의 자료건만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것이다. 이 자료철 내 “제66회 회의록 요약” 자료의 경우 웹사이트 상세 정보상으로는 총 74쪽이지만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9쪽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원이 자료철을 정리하면서 별개의 건으로 분류해야 할 문서들을 자의적으로 통합하거나 누락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기록원의 검색 엔진을 통해 이 자료철을 찾은 연구자들은 회의록 중 아주 일부만이 수집되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으며, 직접 자료철 전체를 받아와 모든 문건을 하나 하나 확인하기 전에는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문건 분류의 부정확성은 이 자료철 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유엔 자료 전반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문제다.

둘째, 유엔 아카이브 자료 분류 체계와 국가기록원 자료 분류 방식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유엔 아카이브의 자료 목록 중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한 것은 역시 각 AG별로 작성된 검색 도구이고, 검색 도구에 기록된 폴더 제목을 기준으로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겠으나, 국가기록원은 각 자료철·자료건의 원출처인 유엔 아카이브의 자료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엔 아카이브는 AG-시리즈-박스-폴더-개별 문건의 체계로 자료를 관리하는데, 국가기록원의 유엔 자료는 AG-시리즈-박스를 표시하지 않은 채 폴더(자료철)-개별 문건(자료건)으로만 정리되어 있고, 각 폴더와 문건의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오히려 접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DTA0002680 자료철은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는 제목이 “정부기관, 대사관, 대표단, 기타 단체와의 서신철-UN 연합군”으로 되어 있을 뿐 이 자료철의 정확한 경로, 즉 유엔 아카이브의 어떤 자료군-시리즈-박스-폴더에 대응하는지 알기 어렵다. 필자가 검토한 결과 이 자료철은 AG-049 S-0687 시리즈의 6번 박스에 들어 있는 1번 폴더(S-0687-0006-01)이고 원제목은 “Governments, Delegations, Embassies and Other Organizations - PS/314 - U.N. Unified Command”이다. 위 문단에서 언급한 DTA0002807의 경우도 검색 도구상 원제목은 “Summary Records (Commission) -

Summary Records 1-90”이고 S-0689 시리즈 12번 박스의 8번 폴더인데, 기록원 웹사이트는 단순히 “1951년 UNCURK 회의 기록”으로만 제목을 달아 두었고 유엔 아카이브의 자료 분류 경로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기록원이 한국어로 번역한 폴더 제목에서도 오역이 있거나, 같은 단체를 가지각색으로 번역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DTA0000021부터 시작되는 운크라 자료철의 경우, 운크라를 유엔한국재건청, 유엔한국부흥단, 유엔재건청, 한국재건청 등 다양하게 번역하여 혼란을 야기한다.

이와 같이 국가기록원은 AG-049 및 AG-064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양의 유엔 자료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분류 및 검색상의 난점으로 연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국가기록원 유엔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아카이브의 검색 도구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국가기록원의 자료 목록과 대조해가면서 접근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Ⅲ. AG-049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자료 소개

1. AG-049 자료군 내 시리즈

앞서 언급했듯이 AG-049는 언커크,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유엔기념묘지 등 한국 관련 3개 유엔 기구가 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각종 자료를 집적한 자료군이다. AG-049는 유엔 아카이브 소장 한국 관련 자료 중 국내 수집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자료군이기도 하다. AG-049는 총 8개 시리즈로 구성되는데, 각 시리즈의 제목 및 분량, 대략적인 자료 구성을 아래에 소개한다.

1) S-0684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주제 파일(Subject Files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COTK))

총 7개 박스 36개 폴더 분량이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1947~48년 기간 생산한 서신, 비망록, 수기 메모, 회의 요약문, 각종 보고서 등이 수록되었다. 2번 박스와 3번 박스에 수록된 위원단 및 산하 소위원회 회의록은 그간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위원단 내 내부 논의와 구성원간 역학관계를 상세하게

보여줄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기록원 관리번호상으로는 BTA0000328부터 BTA0000370번 자료철에 해당한다.

2) S-0685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행정 파일(Administrative Fi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UNCURK))

총 8개 박스 87개 폴더 분량이다. 위원단 구성원들의 한국 내 주거 문제, 예산 편성 등 위원단의 재정 문제, 현지 직원 채용을 비롯한 각종 인사 문제 등 위원단 운영 실무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수록되었다.

3) S-0686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사무국장실 행정 파일(Administrative Files of the Office of the Principal Secretary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총 7개 박스 49개 폴더 분량이다. 사무국장(Principal Secretary)은 한국에 상주하며 언커크 운영의 실무를 책임진 사무국(Secretariat)의 총 책임자다. 언커크의 대외적 대표는 의장(chairman)이지만, 의장은 7개 회원국 대표들이 서로 돌아가며 맡았고, 의장이 한국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언커크 운영에서 사무국장의 역할은 컸다. 사무국장은 유엔 본부의 직원, 이른바 국제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유엔 본부와 소통 채널로서도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를 반영하듯 이 시리즈에는 뉴욕의 유엔 본부와 주고받은 각종 서한이 많이 수록되었다. 그 밖에도 각종 전문, 보고서, 보도 자료 등이 수록되었다.

4) S-0687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서한 파일(Correspondence Fi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UNCURK))

총 7개 박스 68개 폴더 분량이다. 언커크가 7개 회원국 정부 및 주재국인

한국 정부, 주한 유엔군사령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등 정전 체제 운영 기관들과 주고받은 각종 서한을 모아놓은 시리즈이다.

5) S-0688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주제 파일(Subject Fi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UNCURK))

총 9개 박스 80개 폴더 분량이다. 주제 파일(Subject Files)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주제에 따라 연관 자료들을 편철해 둔 시리즈이다. “사무국”, “회의 및 기타 활동”, “선거 파일” 등의 주제가 각 폴더에 부여되었고, 자료의 형태는 서한, 전문, 보고서, 결의안, 보도 자료, 연설문 등으로 다양하다. 언커크의 중요 업무 중 하나였던 한국의 선거 참관 활동과 관련한 자료도 이 시리즈에 포함되었다.

6) S-0689 연구부 소장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주제 파일(Subject Fi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UNCURK) in the Research Department)

총 18개 박스 130개 폴더 분량이다. AG-049의 언커크 관련 5개 시리즈 중 가장 분량이 많으며, 5개 중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언커크 및 언커크 위원회(Committee of UNCURK)의 공식 회의록(Summary Records) 및 시간 순으로 한국 상황을 기록한 주간·격주간 보고서, 각종 정보 보고서 등이 포함되었다.¹⁴⁾ 1950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언커크의 전반적인 활동을 살펴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리즈이다.

14) 1956년 언커크 7개 회원국 중 당시 한국에 외교공관을 보유했던 호주·터키·태국·필리핀 4개국은 언커크 내부에 ‘언커크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7개국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사무국과 더불어 언커크의 중요 업무를 처리했다. 일종의 ‘위원단 내의 위원단’이었던 셈이다. 한국 언론에서는 ‘재경(在京) 언커크 위원회’ 등으로 호칭했다.

7) S-0690 재한 유엔기념묘지 주제 파일(Subject Files of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UNMCK))

총 6개 박스 78개 폴더 분량이다. 부산 소재 유엔기념묘지 관련 자료로, 묘지 운영과 관련한 각종 행정문서, 서한, 보고서 등의 자료들이 수록되었다. 묘지 자체는 1950년대에 조성되었지만, 언커크가 묘지 운영을 맡은 기간이 1959년부터 1973년이므로 시리즈의 자료 또한 대부분 1960년대~1970년대 초반의 것들이다.

8) S-0691 재한 유엔묘지 명부 파일(United Nations Korea Cemetery register files)

총 24개 박스 170개 폴더 분량으로, 박스 및 폴더 분량으로는 AG-049에서 가장 많다. 한국전쟁 기간 전사한 공산군의 시신을 매장한 이른바 ‘적군 묘지’ 관련 자료를 모아둔 것이다. 전쟁 기간 유엔군은 부산, 제주도, 마산, 거제도 등 후방 지역에 ‘적군 묘지’를 조성하였는데, 이 시리즈에는 그 피장자들의 명단 및 신원 보고서가 주로 수록되었다.¹⁵⁾ 이 시리즈는 유엔 아카이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다.¹⁶⁾

2. 자료 예시

유엔 아카이브의 한국 관련 자료는 형태나 내용이 다양하지만 지면 관계상 모두 자세하게 소개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유엔 아카이브 AG-049 자료의 예시로 언커크 회의록 및 언커크의 선거 참관 보고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언커크 회의록

언커크는 공식 회의 뒤에는 참석자의 주요 발언 및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회의록으로 남겼다. 회의에는 7개 구성국 대표 및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으

15) 한국전쟁기 적군 묘지의 조성 과정에 대해서는 전성현(2021) 참조.

16) <https://search.archives.un.org/united-nations-korea-cemetery-register-files> (접속일자: 2022.7.18.)

며, 한반도 정세 및 유엔의 한국내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회의록은 <그림 2>와 같은 형태를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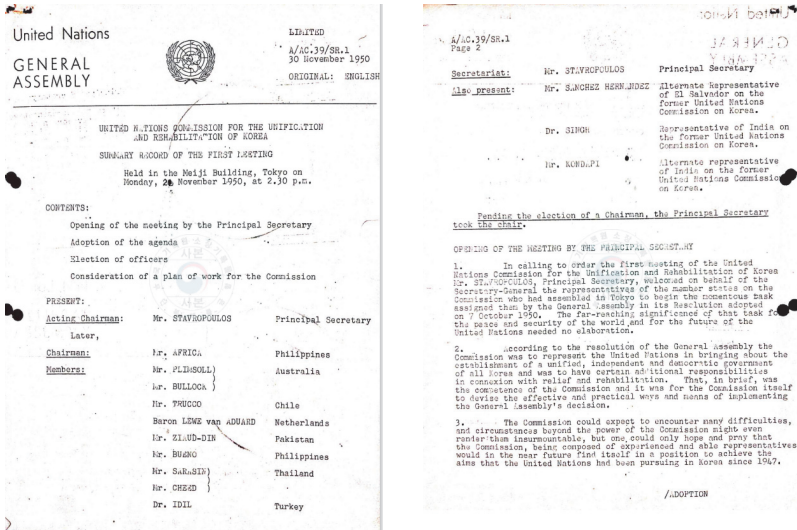
<그림 2>는 1950년 11월 20일에 열린 언커크의 첫 번째 회의 기록이다.¹⁷⁾ 상단에 기록되어 있는 A/AC.39/SR.1이 이 문서의 번호이다. A는 유엔 총회(Assembly)를 지칭한다. 언커크가 총회의 보조기관(subsidiary organ)이므로 붙은 것이다. AC.39에서 AC는 Ad Hoc Committee의 약자이고, 39는 언커크에 부여된 일련번호다. SR.1에서 SR은 요약 기록(Summary Record)의 약어로, SR.1이면 제1회 회의에 대한 요약기록(제1회 회의록)이라는 뜻이다.

언커크 회의록은 냉전기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인식과 사고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언커크의 7개 구성국인 호주·터키·태국·필리핀·칠레·파키스탄·네덜란드는 각각 자국의 입장에 따라 한국의 상황이나 유엔의 역할을 다르게 인식했다. 1950년 언커크가 처음 출범할 때 7개국은 모두 친서방·친미 성향의 국가로서 미국의 대한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한반도 정세 인식 또한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세계적 차원에서 비동맹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언커크 회원국 간에 균열이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1960년대 중반 칠레와 파키스탄이 비동맹·중립 노선에 가까운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전환하면서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논의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¹⁸⁾ 이와 같은 언커크 회원국의 인식·태도 변화는 회의록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글로벌 냉전(global cold war) 차원의 변화가 남북 분단이라는 지역적(local) 차원의 냉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합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회의록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미국·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진 냉전기 한국의 외교사 서술을 다변화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7) “Summary Record of the First Meeting”(1950.11.20.), AG-049, S-0689 Series, box no.13, folder no.2, United Nations Archives.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TA0002809)

18) 칠레, 파키스탄의 외교 노선 전환에 따른 언커크의 변화는 류기현(2021) 참조.

〈그림 2〉 언커크 회의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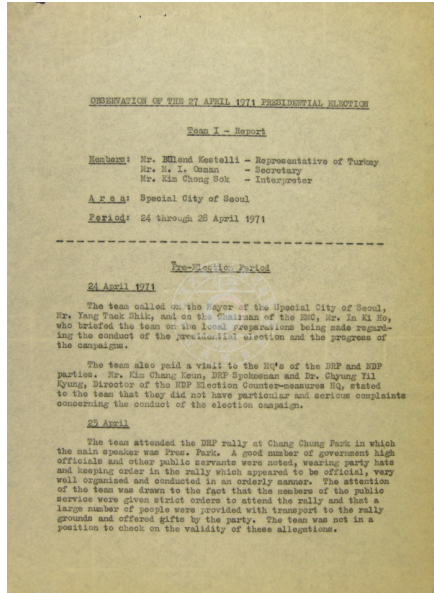
2) 언커크 선거 참관 보고서

언커크가 수행한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대선, 총선, 국민투표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선거들이 문제없이 잘 치러지는지 감시·참관하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S-0688 시리즈의 box 6, 7, 8번에는 언커크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치러진 다양한 선거를 참관하고 남긴 선거 파일(election files)이 23개 폴더 분량으로 남아 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은 1971년 4월 27일에 치러진 제7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언커크의 참관 기록이다.¹⁹⁾ 언커크 터키 대표이자 주한 터키 대사였던 빌렌트 케스텔리(Bülend Kestelli)가 이끄는 참관단이 용산구, 마포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을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참관하고 서울시청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선거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등의 내용이 포

19) "Observation of the 27 April 1971 Presidential Election", AG-049, S-0688 Series, box no.7, folder no.5, Election Files 8 - Presidential Elections, United Nations Archives.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TA0002759)

〈그림 3〉 언커크의 한국 선거 참관 기록



함되었다. 〈그림 3〉은 서울을 방문하고 남긴 기록이지만, 여타 선거 파일에는 서울 외에 다양한 지역들을 방문하고 남긴 기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선거를 둘러싼 ‘지방’의 분위기를 읽는데 도움이 된다. 전반적으로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정치 정세가 어떠했는가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IV. 나가며

아직 한국 연구자들의 손이 많이 닿지는 않았지만, 유엔 아카이브가 냉전사·평화사 아카이브로서 지니는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유엔 자체가 세계 대전 이후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한 만큼, 유엔의 모든 자료들이 냉전사, 평화사 연구의 사료로 잠재력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유엔이 여러 차례의 국제 분쟁에서 무기력했다는 비판, 강대국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은 일정 부분 유효하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성과의 문제와는 별개로 유엔은 1945년 이후 굵직한 국제 분쟁에 대부분 개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자료들은 냉전사·평화사 서술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유엔 콩고활동단(ONUC, 1960~64) 자료군(AG-008)의 경우 폴더 목록을 적시한 검색 도구만 500쪽이 넘을 정도로 분량이 매우 방대하다. 유엔이 분쟁의 조정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 또한 들여다볼 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 유엔 아카이브가 지닌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G-049 자료군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유엔 아카이브 내 한국 관련 자료들 또한 한반도 냉전사·평화사의 재구성과 보완을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유엔 관계에 대한 역사 연구는 대개 미국의 외교 문서 및 원조 기관 관련 자료들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미국이 한국에 미친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유엔 연구 또한 미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는 않으나, 이를 통해 구축된 역사상은 미국의 시선 속에서 구성된 것이기에 한계도 분명했다. AG-049 및 AG-064 문서군을 비롯한 유엔 아카이브의 자료는 서신, 보고서, 회의록, 일지, 비망록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미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시선 속에서 한반도의 국제적 위치를 보다 풍부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다자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한반도 냉전사·평화사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류기현은 서울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냉전사의 관점에서 한국현대사를 재구성하는데 관심이 있다. ‘1950~60년대 유엔의 한국 문제 논의’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다. 대표 논문: 「한국전쟁기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북한 현지 조사와 북한 연구의 태동」, 공역: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그린비, 2021).

참고문헌

- 강성천. 1994. “1947-1948년 ‘UN 조선임시위원단’과 ‘통일정부’ 문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도민. 2020.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보람. 2015. “1948~1950년 유엔신한국위원단의 성립과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선미. 2013. “재한 유엔기념공원의 조성 경위와 관리의 성격에 대한 연구.” 『지역과 역사』 32호, 5-34.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14.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미국 NARA 자료 편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까밀로 아기레 토리니. 2014. “칠레와 남북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칠레 역할과 사퇴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기현. 2021. “1960년대 비동맹·중립주의 확산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의 균열.” 『역사문제연구』 46호, 57-94.
- 신승욱. 2013. “1·2차 유엔한국위원단의 평화통일 중재 활동과 그 귀결(1948~1950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정선. 2021. “유엔모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모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1955~1960년을 중심으로 -.” 『군사』 119호, 1-34.
- 이주봉. 2011.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인식과 5·16 군사정부의 유엔 정책.” 『역사와 현실』 82호, 367-405.
- 임다은. 2019.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전성현. 2021. “한국전쟁기 유엔한국모지(적군 모지)의 조성과 의미.” 『사회와 역사』 132호, 177-207.
- 정인섭. 2021. 『신국제법 강의: 이론과 사례』(제11판). 서울: 박영사.
- 최동주 편저. 2020. 『유엔과 한국: 1945-1973 건국, 평화, 경제성장의 파트너십』.

서울: 경계.

최요섭. 2005. “1947-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성립과 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홍석률. 2020. 『1970년대 UN에서의 UNCURK 해체 문제』. 파주: 경인문화사.

Claus, Robert. 1947. “The United Nations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10(2): 129-132.

Claus, Robert. 1970. “The Proposal for a United Nations Archival Agency.” *The American Archivist* 33(1): 25-33.

Erlandsson, Alf. 1978.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Archivaria* 7: 5-15.

Lee, Kwang Ho. 1974. “A Study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UNCURK): the Cold War and a United Nations Subsidiary Organ.” Ph.D. Thesis, University of Pittsburg.

UN Secretary General. “Functions of the United Nations Archives”(SGB No.63) (1947.3.28.)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473057?ln=en>)

Abstract

UN Archives and Research on Cold War and Peac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Commentary on Records of the UN Archives Relating to Korea

Ryu, Kee Hyun*

This article suggests the history, research guide, and record management system of the UN archive, and introduces specific sources that can be used for the study of Cold War and Peac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Since 1945, the Korean Peninsula has had close rel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in many aspects, but there has been insufficient historical research on this. This is related to the issue of data access, as researchers are not fully aware of the data situation in the United Nations archive, which holds diverse array of records from the United Nations. Although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collected some of the records related to Korea from the UN archive, it is not easy for researchers to use it due to confusion in the record classification system.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the structure of Korean-related records in the UN archive and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UN records in NAK,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sing some of them for future Cold War and peace history study.

Key Words: UN Archives, UNCURK, UNKRA, UNMCK, League of Nations

논문투고일: 2022. 7. 20.

논문심사일: 2022. 7. 29.

게재확정일: 2022. 8. 15.

* PhD Candidat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k0724@snu.ac.kr